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환아등록 및 후원문의 064-752-3300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1072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1월 9일 월요일(음력 10월 1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위성곤 도정 첫 새해 예산안 심사 '주목'

제주도의회 10일~12월 9일 제456회 정례회 개최
도 편성 8조400억 놓고 경제위기 극복 여부 검증
위 지사 공약사업 예산은 도-의원 간 공방 예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202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의회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4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우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이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 모두 22명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1차산업 위기 대책,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제주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방식과 실효성, 중국 칭다오 해상 화물 운송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한 혈세 낭비 등 지역사회 갈등 현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후 처음으로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의 추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16일부터 17일까지는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이 실시되며, 11명의 의원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앞서 도의회에서 부결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과 관련한 교육감의 입장 및 향후 대응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마무리되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지난 6일 8조40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7조7874억원보다 2532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6조6670억원으로 올해 6조3580억원 보다 3090억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3736억원으로 올해 1조4294억원 보다 558억원 줄었다. 제주도는 9일(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 내용과 주요 사업을 공개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1조6170억원 규모로, 올해 1조5788억원 보다 382억원 증액됐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새해 예산안이 제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됐는지, 또 공약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검증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공약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 신규 사업의 필요성 등을 놓고 제주도 집행부와 의원들 간 공방도 예상된다. 이태윤기자

내년 1~2월 도민의견 수렴 방식 확정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 결과 공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최대 쟁점인 도민의견 수렴 방식과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 결과를 다음날인 6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다. 협의회는 1단계에서 가능한 의견 수렴 방식을 목록화하고 평가 기준과 기준별 비중을 합의한 후 내년 1월 중순까지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 대안을 비교해 적합대안을 2~3개로 압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적합대안 중 의견수렴 방식을 확정하고 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수안과 위원별 의견을 함께 기록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5가지의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도민 전체 의견의 반영 여부를 따지는 대표성,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거친 판단을 담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숙의성, 2027년 6월까지 실시 가능한가 등 소요 기간과 비용 문제, 결과 해석이 갈릴 여지가 적은가 등 결과 해석의 명확성, 관련 법령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가(법적 근거) 등이다.

이밖에 추가 검토 평가 기준으로 도민 전체와 공항 예정지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서로 다른 입장의 도민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를 따지는 결과 수용성도 평가 기준으로 예시했다.

특히 도민의견 수렴 방식 검토 대상으로 여론조사, 숙의형 공론조사, 주민투표, 둘 이상을 결합한 방식 등에 대해 대상 범위와 소요 시간·법적 요건을 방식별로 비교하기로 했다. 위영석기자

도의원 의정비 6942만원
월정수당 내년 2.7% 인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한해 받는 의정비가 7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월정수당은 내년 2.7% 인상률을 적용하고 이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책정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제주도의회 의원 1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400만원과 인상된 월정수당 4541만8080원을 더한 6941만8080원이다. 이상민기자



2026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개최한 '2026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둘째 날인 8일 구좌체육공원에서 출발해 해맞이해안도로를 따라 성산읍 송난포구까지 왕복하는 약 52㎞ 구간에서 '제주사이클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제주 주요 법안들 국회 심의 '지지부진'… 2면 / 소방의 날 특집, 제주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가보니… 4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도, 방역대책본부 가동… 위기경보 '심각' 격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전국 야생 조류에서 3건의 고병원성이 검출됐다.

가금농장에서도 올겨울 첫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난 4일 경기도 연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는 해마다 철새도래지를 찾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최근 3년간 야생조류 확진 건수는 2023~2024년 2건, 2024~2025년 7건, 2025~2026년 4건 등이다.

제주도는 거점소독시설 10곳을 운영하는 한편, 64곳 가금농장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 40명을 지정했다. 또 철새도래지 3곳을 통제 구간으로 지정해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다른 지역 가금류와 생산물 사전 반입 신고와 AI발생 지역 가금류 등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산란계·종계·토종닭 농장 정밀 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 이상민기자

